

## “인간의 질병이지 노여움은 아니다”

정 선 화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사

**“AIDS는 인간의 질병이지 신의 노여움은 아니다. 감염자를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한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회장 이원규 신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AIDS,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를 주제로 사회복지단체 종사자, AIDS 관련단체 종사자, 성직자, 수도자 등 약 2백여명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인 가운데 AIDS 예방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 참석차 내한한 강사로서 Robert J. Vitillo 신부는 국제 카리타스 유엔 및 미국정부 주재 대표로 AIDS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미생물학 전공 의학박사인 Ann Smith 박사는 해외개발 가톨릭 공동기금 영국 AIDS 교육담당으로 AIDS 퇴치를 위해 국제적인 활동을 해 온 AIDS 전문가들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AIDS가 발병하기까지의 과정을 비롯해 AIDS의 세계적 현황, HIV

/AIDS 환자에 대한 심리적·사회적 고찰, 교회의 사목적 지원과 역할을 주요 내용으로 상세히 설명하였다.

비탈로신부와 스미스 박사는 특히 “HIV 감염자나 AIDS 환자에 대해 왜 감염되었는지 묻지 말고, 그들을 윤리적인 잣대로 판단하지 말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비탈로신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AIDS 회의에 계속 참가해 교회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WHO 관계자들에게 우리는 각국 교회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정확하고 생생한 경험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기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AIDS 예방을 위해 단순히 콘돔 사용을 권장하는 WHO에 배우자끼리 만의 건전한 성생활을 강조하는 우리의 노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고 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가 흔히 AIDS라고 지칭하는 것을 HIV 감염자와 AIDS 환자로 구분해야함을 명시하고 그 차이를 명확히 아는 계기가 되었다. 즉, HIV는 바

이러스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병원체로서 우리 몸에 감염되면 정상적인 면역의 기능을 파괴시켜 다른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을 잃어버리게 하여 여러 가지 질병을 쉽게 유발시킨다. 면역계통이 무너져서 병과 점점 싸울 수 없는 다른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부터 AIDS 환자라고 불리는 것이다. HIV 감염자는 보통 7~10년의 잠복기를 가진 후 AIDS 환자로 발병하며, HIV 감염자가 모두 AIDS 환자는 아닌 것이다.

일부에서는 HIV 전파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마스크의 극단적 보도로 AIDS 자체보다 질병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선입견, 감염자에 대한 낙인이 먼저 도입되었다. 악수나 포옹, 식사를 통해서도 HIV가 감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AIDS에 왜곡된 시각이 그들을 더 외롭고 힘들게 하며 더욱이 분노심까지 갖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이다. HIV 감염자라도 그들의 건강한 체질, 약한 바이러스, 규칙적 운동, 바른 식생활, 사회적 안정, 가족들의 사랑과 보호 등으로 아직까지 AIDS 환자로 전이되

지 않은 것은 이들에게 병을 이기려는 의지와 사회 심리적 안정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진다. HIV 감염자, AIDS 환자라고 무조건 멀리하려는 것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한 일원으로 지지한다면 우리가 치료에 한 몫을 하는 것이다.

세미나 중 참가자들이 공감했던 부분은 '내가 HIV에 감염되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여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다.

가상의 HIV 감염경로와 검사 결과 감염 사실을 알았을 때 나의 행동에 대해 눈을 감고 상상한 후 내가 감염자가 된 입장에서의 느낌을 나누는 자리였기에 HIV 감염자, AIDS 환자의 외로움과 아픔을 마음으로 느끼게 되어 이들과 함께 일할 때 가지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1990년도부터 AIDS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여, 2월 24일에 워싱턴 AIDS 연구 소장인 캐틀린 라이언씨를 초청하여 AIDS 교육을 하였고, 그 해 6월 14일에 AIDS WORKSHOP을 여성복지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였다.

1994년 1월에 본회 소속 여성사목위원회는 태국내 여성복지시설을 견학하며, 태국교회에서 행하는 AIDS 예방 활동, 관리의 현황을 파악하고, AIDS 말기환자 치료센터를 방문하면서 AIDS에 대한 교회의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발전되어야 함을 느끼게 되었다.

1995년 5월 26일에 감염자를 위한 단체 HEAVEN IN VIEW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AIDS 환자인 발레리 월번 사인즈 여사를 모시고 "AIDS 예방과 퇴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9월 5일에는

"가족의 태도 반응에 따른 AIDS 감염자의 적응"을 주제로 이선자 교수(서울대보건대학원), 정광모 회장(한국소비자연맹)등 관련인사 8명의 토론자가 참여한 가운데 토의가 진행되었다.

태국 AIDS 시설 방문이후 사회 문제로서 AIDS 예방교육이 교회 내에서 보다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여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200여명의 관심과 호응으로 3일간의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다.

세미나를 준비하고 실시하면서 AIDS에 관심이 있는 이들을 발견하여, 산재한 이들을 작은 모임으로 조직하여 적극적인 AIDS 예방 사업을 펼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자료수집 및 교육을 통한 예방, 상담사업과 감염자 돌봄, 다른 AIDS 유관단체와의 관계성 유지 등으로 그 활동을 활발히 꾀하여, 방치가 아닌 적극적인 태도로 그 작업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A

